

민족 정신 문화 불식시키는 외래 종교

1. 외래 종교

외래 종교를 논함에 있어서 이른바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것 치고 외래 종교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은 비단 우리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그 출원지에서는 발을 못 붙이고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비로소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교는 인도가 근원지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별로 발을 못 붙이고 동남아시아 일대와 극동아시아에서 성황을 이루었다. 전자에서는 소승불교로 후자에서는 대승불교로 발전됐다.

우리가 서구종교라고 일컫는 그리스도교도 그 원천지는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인데 그것도 그곳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대로마제국이 전유럽을 침략한 통로를 역으로 침투하여 마침내 유럽의 종교로 정착한 것이 서방그리스도교이며 일부는 러시아, 회랍 등으로 퍼진 것으로 동방 그리스도교라고 일컫는다. 유교도 종교라고 규정하는데,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 일본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외래 종교라는 말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종교의 근원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끝끝내 이질적인 것으로 그 나라의 문화 전통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다. 서구와 중국

의 예를 들어 보자. 서구에서는 고등 종교의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전래된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서 수용한 이래로 문화적으로 말하면 그레코 로마의 전통 속에 이질적인 헤브라이즘을 받아들여 이 두 이질 문화를 교묘히 절충, 조화 시킴으로써 그리스도교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작업은 대단한 것으로서 어떤 종교도 감히 발붙일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의 종교로 만들어서 그 실세를 과시해 왔다. 중국의 경우에도 인도에서 발생된 불교를 유교의 문화권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로써 불교 자체가 중국이라는 문화 바탕에서 변모되었고 대접성되었다. 두 경우 모두 어느 것이 어느 것을 변질 또는 종속시켰는지 알른 판가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접목한 것이다.

2. 종교의 수용 자세

우리가 문제시 해야 되는 것은 외래 종교 자체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수용 자세이다.

불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는 상류사회를 타고 들어왔다. 유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그 영향이 비판적으로 분석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면 왕권문화 또는 귀족문화가 민중의 문화를 압살하거나 위축시킬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문제시 할 것은 그리스도교이다. 그 이유는 개화와 더불어 받아들인 이 종교가 현재까지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리스도교의 전래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상류층에서 수용 전파된 것이 아니라 민중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크게 평가한다. 더군다나 쇄국주의를 펼 때에

침투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또 우리를 식민지화한 일본세력이 반 기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수용은 민족 의식과 쉽게 접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사실에 큰 함정이 있었다. 그것은 세계의 제국주의 물결을 타고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이다. 제국주의라는 면에서는 구미나 일본은 같은 선상에 있었다. 단 구미 제국주의는 그리스도교를 앞세우고 들어와서 문화적 완충지대를 삼았으며 일본 제국주의는 그럴 수 있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침략했을 뿐이다. 구미 제국주의가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동반했고 선교사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제국주의의 온상 역할을 해왔다. 그것은 문화적 침략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에 개종하는 것과 우리 전통 문화를 버리고 서구 문화로 대체시키는 것을 동일시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개화 바람을 타고 별 저항 없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서양 문명을 받아 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개화를 주장하는 층도 이 점에서는 꼭 같았다. 서구인들은 한국의 전래 관습들을 그리스도교의 이름을 빌려 미신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추방하기를 강요했다. 미신 자체는 물론 배격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추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신이라는 범주 안에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싸잡아버린 것이 문제이다. 가령 설날을 위시한 여러 명절에 전래해 온 관습들,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들 즉,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결혼을 할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조상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 등이 금지되었거나 퇴색해 버린 것이 그 예이다.

저들은 이른바 고등종교로서의 불교나 유교 등의 형식이나 내용은

부정하든 긍정하든 인정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일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 우리의 관습들을 주목하면 그것에 엄연한 세계관이 있으며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풍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심미적인 요소도 있거니와 과학성도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소통하는 현명한 기술도 내포되어 있다. 가령 출산한 가정의 대문에는 금줄을 쳐놓는다. 서양인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부적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겠으나 그것은 공동체에 한 생명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며 이방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과학적 근거도 갖고 있는 풍습이다. 우리에게서 부락제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계절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돼지를 잡고 집집에서 장만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의 대상은 산신령일 수도, 수신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그리스도교는 종교적인 시각에서 우상 숭배라고 단정하여 거부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무지한 일방적인 판결이다. 이것은 한 공동체가 그들의 전통을 전승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음과 물질을 한데 모으는 제사 행위는 부락민의 관심의 초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제사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음으로써 한 근원지에서 받은 것을 함께 먹는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가난하기 때문에 편식하고 있는 후손들이 영양 보충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 것처럼 정력적으로 배격한 우리의 조상 숭배도 마찬가지다. 조상의 위패를 모신 가정에서는 끼니때마다 위패 앞에 음식을 바쳤다가 물린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것도 집안의 전통을 행위로 전승하는 관습이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한 가족임을 재확인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한국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종교냐, 아니냐의 시비는 무의미한 것이다. 한 동리에 어떤 행사가 있든지 음식을 차려서 나눠 먹는 전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가 가족을 식구—먹는 입—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지하가 “밥은 하늘이다”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한국적 발상이다. 이 같은 중요한 전통을 거부하는 그리스도교가 되면 그것은 외래 종교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성서에서는 이러한 관습을 거부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성서의 초점은 사랑이며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는 나누어 먹는 것이다.

예수 당시의 종교 귀족들은 민중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는 예수를 비난해서 죄인의 친구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신천지’의 도래를 강조했는데 그 나라의 설명으로 잔치나 만찬과 같은 비유를 많이 사용한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더불어 나눠먹는 행위를 떠나서 사랑도 옳은 세상도 있을 수 없다. 서구 사회에서 발달된 개인주의는 성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도 변질시켰다.

근대화 이후의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서구의 정치나 경제 체제를 옹호 또는 변호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제국주의가 팽배했을 때 그리스도교가 그 앞잡이 노릇을 한 것처럼 매판 자본주의가 그리스도교의 옹호로 자기 정당화하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자기의 주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부의 편중, 자본에 의한 비인간화, 노동의 착취 따위를 성서가 용서할 까닭이 없다. 성서적 입장에서 오늘의 미국을 위시한 서구 사회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친미적이며 사랑의 명령과 어떤 갈등이 되는지도 묻지 않은 채 자본주의 체제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서구의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세뇌됨으로써 성서의 본뜻을 자주적으로 보지 못하는 증거이다.

외래 종교로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민족 또는 국가를 등에 업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종교의 발생지인 그 나

라 숭배와 결부시키는 잡종교들이다. 일제가 물러가자 민간 사회를 맨 먼저 뚫고 들어온 것이 일본의 신흥종교들이었다. 천리교나 창가학회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들은 교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종주국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일본의 침략성에 눈을 뜨지 못한 일부 계층은 그 종교 자체보다 재기하는 일본의 힘을 의식하면서 이런 종교들을 귀하게 여기는 현상이 속출했다.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에 마호메트교가 등장한 것도 이와 비슷한 계기를 갖고 있다. 이 종교의 등장은 석유가 위세를 떨칠 때와 시기를 같이 한다. 문제는 개종자들이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랍 세계의 중심인 메카를 향해 요배하는 의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란 이름으로 민족적 예속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3. 종교의 외래성 극복을 위해

참 종교는 보편성을 띤 만민의 것이기 때문에 내것이니 네것이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를 지배 이념으로 이용하는 강대국이 약소 민족 또는 국가를 침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의 그리스도교가 우리 민족문화를 위협하는 것은 그것을 앞장세운 미국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잠입한 신흥종교들도 그 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 그 배후의 재기한 일본 세력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종교가 이른바 외래 종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문화의 종속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창달하는 데 적극적인 활력소가 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작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첫째는 어떤 종교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 우리는 종교의 본질만을 파악하며 비본질적인 것은 그 종교를 형성하게 한 문

화권의 특수성과 그 종교를 지배 이념으로 만든 동기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을 과감히 제거하고 그 종교의 본질적인 것을 규명해내야 한다. 가령 외래 종교인 귀족적인 불교를 원효대사가 그 본질을 재해석함으로써 민중 종교화 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든 것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점차 제3세계에 의해서 그 해석권이 구미에서 박탈되어가고 있다. 서구 문화와 그리스도교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그리스도교와 성서를 구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서 자체 안에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병존하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서구인들이 해석한 성서와 그들에게 침략당한 제3세계의 눈으로 본 성서의 내용은 같을 수가 없다. 성서 안에도 참민중의 삶에서 우리나라 진정한 것이 있는 반면에 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발전시킨 부분도 있다. 주체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종교의 본질을 다시 규명하는 일이다.

둘째는 위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들의 전래적인 문화를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 주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활 풍습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외래적인 것과 우리의 것, 우리를 살리는 것과 굴종시키는 것 등을 냉철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우리의 문화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서구 문화의 시각에서 또는 고등 종교의 입장에서 한국의 문화 형태를 조명해왔다. 그러나 근경에 와서 오랫동안 무시점으로 대중 속에 파묻혔던 민중 문화를 발굴해 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작업은 복고주의나 국수주의의 일환이어서도 안 된다. 특수한 것은 보편과 통한다. 진정한 우리의 것을 발굴해낸다는 것은 동시에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를 창달한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파문혀 있던 전래적인 것을 찾았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오늘의 세계에 등장시킬 수 없으며 그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재해석하여 우리의 삶과 결부시킬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비인간화가 가속화하는 마당에 종교에 부과된 사명은 막중하다. 성장의 속도와 종교 인구의 증대가 병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구인들은 종교의 일원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우리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친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인류에게 참종교를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

(덕성여대신문, 1986. 9. 29)